

한국여성사의 획기적인 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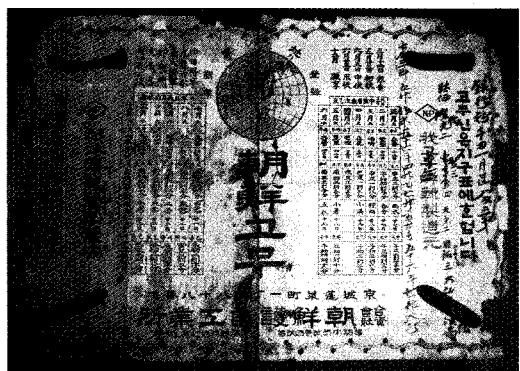
유행(流行), 여성 패션을 돌아보다

요사이 얼짱, 몸짱 바람이 불고 있다. 그래서 정형외과, 헬스클럽 등이 호황을 맞았고 “웰빙”이라는 용어가 심심하게 메스꺼워 오르내리면서 건강산업이 새로운 유망업종으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유행”을 부추기는 매체로 인해 대규모 소비 형태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하나의 산업화되어지는 것이 대중사회의 특징 중의 하나이다.

1920년 전후로 여성사회(당시 사회활동이 가능한 기생, 학생 류)에서 칠리화 된 의상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노랑, 자주, 남색의 치마 저고리가 등장하고 여학생들간에 흰 저고리에 검정치마가 교복화 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소박하게 시작된 여성의 유행시대를 맞이할 당시 대중사회를 주도 했던 남성사회는 양복과 중절모가 도시에서는 일상화되고 있었다.

“고무신 고무신 우리나라 신 삼천리 강산에 우리나라 신”



1945년 조선호모공업소월력(초기 고무신은 재래 갓신 형태였다.)



1930년대 고무신 노점과 행상

내가 어린시절 또래 계집애들이 고무줄 놀이를 하면서 가장 흔하게 부르던 노래였다.

1920년대 “깜장고무신” 출현은 한국여성사에서는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서구학문의 특징인 편리성과 실용성을 바탕으로 한 이 패션용품은 단 기간 내에 재래 짚신과 갓신을 사라지게 했고 이 “양품”을 받아들임으로써 조선500년 은둔의 여성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숨겨진 여성의 자아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1930년대 패션용품(모자)

수집경력 20년의 필자는 1920,30년대 여성패션 용품에 대한 관심은 라의
추종을 불허한다.

이젠 이전 진짜고물을 파는 청계천 노점은 사라졌지만 노점상인들을 기억하곤 한다.

어리석을 정도로 숨했던 “종대”..... 나를 형님이라 부르던 그는 종종 나에게 재미있는 물건을 주곤 했다.

이 모자를 쓰고 각설이 흉내를 내면서 주었더 “각설이 모자”.....

이 낯선 철체식으로 다가오지만, 조기현대의 그야말로 전통을 바



1927년 「별거곤 잡지에 실린 모던보이 모던걸에 대한 풍자화」

국민학교 때 광통을 두드리면서 우리집
문간에서 “밥 좀 주이소~밥 좀 주이소~”
외쳤던 내 또래 아이가 얼굴을 가리기
위해 푹 눌러썼던 이 모자는 1930년대
최고의 멋쟁이 여인의 것이었다.

양장 스타일에 단발머리 위에 이 모자를
썼던 그 때 그 여인...

뾰족구두를 신고 프랑스제 양산을 든 채
전차가 지나는 경성거리를 거닐 때면..
골목고맹이들이 “야! 신여성 간다” 하면서
귀찮을 정도로 졸졸 따라 다녔을 것이다.

그러나 인생은 일장춘몽이라 70여 년 나이를 가진 용도폐기 된 이 모자는 그녀의 죽음과 함께 그녀 자손에 의해 버려졌고 이것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마지막 종착역인 청계천에서 심판의 날을 맞은 것이었다.